진리 평화 창조

발행인 최 완 복
편집인 박 성 래
편집장 김 강 민
외대신문사
전화 ☎ 7128 (직통)
우편번호 13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동270-1
인쇄인 조선일보사 방 우 열

외대학보

(1958. 27. 제 3 종우편물인가)
(등록번호 제다 253호)

제294호
<주간>
1980년 3월 18일
매주 화요일 발행

등록 1960년 7월 1일
창간 1955년 4월 11일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등록금…학생측대안, 교수회의에 부의

신임 과회장단과 교수단, 처음으로 회의 가져

지난 14일, 교수회의 결의문 공표

「추진회」해체-학생의견 창구 일원화이뤄

○——개강이후 학내제반문제의 제시와 규명에 자진해서 진력해왔던 「학림민주화추진회」가 지난 15일 자진해체를 결정하였다. 「전임——○
○——과회장단」역시 17일 공식적으로 퇴진하면서 14일 결성된 신임과회장단이 학내 현안문제의 타결을 위한 학생의사 반영의 단——○
○——일화된 창구로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14일 본대학교수단이 「교수회의 결의문」을 공표함에 따라 급박기 등록금문——○
○——제가 현재 최대의 학내문제가 되어있는데, 17일 교수단과의 연석회의에 이어 18일, 신임과회장단은 최완복학장과 김홍배재단이——○
○——사장과의 면담을 요청, 최학장과의 회합에서 등록금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최학장은 이를 교수회의에 부의하여 결——○
○——토연후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최학장은 과회장단의 「추가등록 잠정보류」를 받아들여 이를 함께 공표하였다.——○

18일 오후 5시 과회장단은 김홍배재단이사장을 비롯 재단이사, 박유근 사무처장등과 면담하고 등록금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촉구했으나 재단측은 79, 80년도의 등록금 비교표를 제시하는등 부분적인 해명만을 거듭해외의는 별다른 결과를 얻지못했다.

이보다 앞서 17일 대학본부 제1회의실에서는 본대학 개교이래 처음으로 학생대표인 과회장단과 각 학과장을 주축으로한 교수단이 회의를 열고 학내제반 문제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최학장은 개회사를겸해 교수단의 입장을 밝히는 가운데 「사회가 전환기에 이르면 그동안 잠재한 문제가 표면화되나 학원은학원답게솔기와운기로 이를 해결해야한다」고 전제하고 「크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과거에 접착하지 말고 미래지향적 자세로 학생, 교수, 경영인 삼자의 권리를 닦달이 인정하는 가운데서 조화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제가지 원칙을 밝히며 학생들의 이해와 협력을 촉구했다.

이에 과회장단은 기조연설을 통해 재단측의 부당성과 부실한 대학운영을 통박하면서 학생들이 제시한 등록금 인하내지 그에 준하는 해명인 등록금산출근거를 밝히지 않는 한 한걸음도 양보할수 없다는 장경한 의사를 표시했다.

이날 회의는 과회장단측에서 밝힌 학생들의 의사와교수단이 발표한 결의문이 합치하는 점이 대부분이었지만 등록금 문제에 관해서는 여하한 의견접근도 보이지 않았다.

교수단은 대체로 학생들의 주장이 일단 정당한것임은수긍한반면도 보다 원대한 목표인 「학림민주화」를위해 소(小)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교수단의 결의를 계속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2시간15분동안 계속된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교수들은 안병만 학생처장, 조규철교무처장, 각학과장등 모두 23명이었다.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신임과회장단은 세차례에 걸쳐, 교수단, 최학장, 김재단이사장을 차례로 만나 회의를 계속 가졌었다.

과회장단측에서 제시한 해명요구사항 아래와 같다.

▲1. 바대학보다 등록금이 싸다한 이유. 2. 75년이후 올해까지의 등록금 산출근거에서 학생들이 제시한 등록금 중에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4. 신학기 등록금이 예년에 비해 높게 책정된 이유. 5. 올인본교설립자금의 출처 어부. 6. 편입생을 주·야195명씩 이나 선발한 학실한 이유. 7. 등록금책정의 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인하할 수 없는 타당하고 구체적인 이유.

◇과회장단과 교수단의 회의장면.

「교수 회의」결의문공표

개강이후 학원자율화 및 등록금문제등 학내 현안문제에 대해 교수단에서는 지난 14일 8개항의 「교수회의 결의문」을 공표했다.

3월10일, 최완복학장을 포함, 교수회의에서 위임한 교무위원으로 구성된 교무위원회가 등 (同) 결의문을 작성한 뒤 다음 날 오후 5시부터 열린 3차교수회의에서 교수들의 결의에인 효용으로 가결되었다.

12일 「추진회」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이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재단측의 제지에 의해 좌절되었고 최학장은 학장직위로서 「최후의 수단」까지 불사할 의사를 표명하는 등 공전을 거듭하다가 13일 최학장 및 교무위원이 이사장과 회동 이날 밤 늦게 재단의 동의를 얻어내는데 성공한 뒤 다음날인 14일 오전 이를 공표했다.

교수단에서 발표한 결의문은 「포괄신장」과 「학내 현안문제의 타결」이라는 두개의 명제를 놓고 「교수회의 기능강화」와 「등록금인하 불가」를 주장했다.

<결의문 요지참조>

이번 「교수회의 결의문」에서 발표된 바대로, 사무처장을 교수로 임명한다면 현재 사립대로서는 획기적인조치인것으로 이는 학생측에도 큰 효용을 발고있다.

교수단 결의문을 작성한 교무위원명단은 아래와 같다.

▲최완복학장, 김계수대학원장 이희준무역대학원장, 조규철교무처장, 안병만학생처장, 노동선 2부교학과장, 임진권기획실장, 오한진본교학처장, 허세욱도서관장, 박유근사무처장.

과회장단회의

지난 14일 결성된 과회장단회의는 등록금문제를 타결하기위해 17일 교수단과 회의를 가졌으나 「소득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날 밤 대책을 숙의했다.

대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과회장단은 다음날 김이사장과의 면담에서 해결책에 대한 확실한 언질을 받지 못할경우 같은날 오전 11시 학내에서 성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학의로의 비화」를 막는다는 원칙하에 이를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18일 오전과 오후 학장, 이사장을 차례로 면담하는가운데 실질적인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으나 최학장으로부터 「학생측의대안을 교수회의에 부의할 것」이라는 언약을 받고 일단 대안을 마련하기로 결정, 이를 토의하고 있다.

신임 과회장단은 14일 전임과회장들과 인수인계절차를 받은뒤 17일 각 학과대표들로부터 학내문제해결을 위한 임시 학생대표기구로서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위임장을 받은바 있다.

신임과회장단은 학내의 방면학보를 「등록금 인하 내지 이에 준하는 학교당국의 해명요구」와 「학생대표기구출범을 위한 조기총선」으로 삼고있으며, 새로운 학생대표기구가 들어설때까지의 「임시기구」임을 명백히 했다.

「신임과회장단회의」의 상임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 임홍수 (R · 3)
▲위원 : 정선승 (I · 3) 최선웅(E · 3) 윤윤근(PA · 3) 김용관 (EC · 3) 정재훈 (S · 3) 이성수 (KE · 3)

교수단 결의문 요지

첫째, 교수회의의 기능을강화한다.

1. 등록금 책정은 교수회의의 협의 인준을 거친다.
2. 사무처장은 교수로 보한다.
3. 인학, 편입, 재입학 등 학사제반사항은 교수회의의 협의, 인준을 거친다.
4. 기타 교수회의에 관한 사칙은 교수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둘째, 현 등록금인하는 마땅치않으며, 대신 제도적 보완 이외 복지면에서 대안을 마련한다.

1. 학생장학기금, 교수연구기금 각 1억원확보, 계속 증액.
2. 급년도 장학금의 대폭 확장.
3. 교직원의 처우 개선.
4. 교내복지시설의 내실화 및 확대 (본사항은 앞으로 학생대표기구와 면밀히 상의).

추가등록 잠정보류

1차 등록률 15%선에 그쳐

사무처는 18일 급학기 추가등록을 보류할 것을 공고했다.

이는 그간 「등록금 인하문제」를 둘러싸고 학생들과 학교측이 협의한 결과로서 상호 타협점을 찾지 못해 「대안」이 마련될때까지 학생들의 등록을 보류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한편, 금학년도 1학기 1차등록률은 지난 6일 현재 15%선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처럼 등록률이 저조한 것은 개강초부터 「그간 등록금이 싸다하게 책정되어 왔다」는 학생들의 주장과함께 「전임과회장단」등의 학생단체가 중심이 되어 등록금인하를 요구하며 등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수측은 지난 14일 「교수회의 결의문」을통해 「등록금 인하는 바랑하지 못하다」고 밝힘으로써 학생들의 요구와 배치되는 입장을 보였다.

본대학, 전기대전환추진

기획실, 학생의견 청취용의 있어

본대학이 81학년도부터 전기대로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각학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80학년도 입시 사정회의에서, 최완복학장은 정식으로 전기대입시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고 이에 따라 지난 2월22일~23일 양일간 경주에서 열린 「전체교수연수회」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봄으로써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전기대로의 전환문제는 최근 몇년동안 수차례 거론되어왔으나, 학내제반여건의 미비와, 시기문제등을 고려하여 보류되어 왔었는데, 이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대로 전환될 경우,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대다수의 학생이 표명하듯이 「입학지하」의 문제인데 이에 대하여 입진권 기획실장은 「당장 몇년간의 손익계산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학발전」이라는 대전제하에 강력한 의지로 이일을 추진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고있다. 또한 입실장은 「현재 학내분위기가 정리되는데로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을 가지고있다」고 밝혀 조만간 전기대 전환문제에 관해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할 뜻을 비쳤다.

현재로는 원칙적으로 81학년도부터 전기대를 한다는것만 합의되어 있을뿐 구체적인 입시로의 전환을 위한 「등록위원회」와 「입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며 이를 기해 입시로의 전환을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80학년도입학식성료

주·야 1,545명, 분교생300명입학

1980학년도 신입생 1,845명 (2부, 분교포함, 외국인, 외교관자녀 특별전형 5명제외)의 입학식이 지난 5일 오전11시 최완복학장, 김홍배재단이사장을 비롯한 내외귀빈과 교수및 학부형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대학 교정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입학식은 이광구 시청자교육원 연구실장의 사회로 개식사, 국민의례와 최학장의 「입학하기 선인」에 이어 신입생대표 조연학군 (영어과·수석입학자) 이 「신입생선서문」을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식사를 통해 최학장은 「학문연구와 인격도야라는 목표를 위해 대학의 자유화 자율화는 결코 보장되고추진될 것이며, 학생들은 이에 수반하는 인격수양과 학문연구에 정진해야 한다」고말했다.

치사에 이어 있은 「이문장학금」수여식에서는 각 학부·과별 (2부·분교포함) 수석합격자 45명이 장학금을 수여함았다. 끝이어 각 학부별교수, 3개부처장등의 소개등이 진행된 뒤, 이날 12시경 입식을 마쳤다.

편입생 202명 선발

2부 100명포함, 77년이후 처음

금학년도 본대학 편입생 195명 (2부 100명 포함) 학사편입 7명등 총202명이 지난 2월18일 교부처에 의해 최종 합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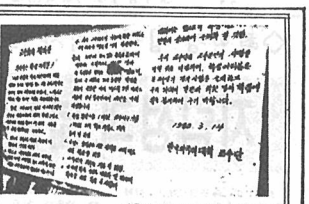
77년이후 모집하지 않았던 편입생을 금년도에 선입학케 된 이유를 교부처에서는 「류학·계획학생보다 복학·복귀학생 수가 매년 조금씩 감축되어 왔는데 이년 편입생을 선발하기가 넘거보은 반기로 2년이 정도의 기간을 두고 생긴 결원을 이번에 한꺼번에 충원하게 된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간의 경우는 차치하고라도 2부대는 정원의 4분의 1이 편입생으로 차게 되어 기존학생과의 융화문제, 질적인 수준문제 이등 결과에 대하여 학생들간에 의의적인 반응이 일고 있다.

학교측에서는 「2부대는 이제 막 출범한 단계로서 졸업요인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준비, 유학등의 결원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2부대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을 드러내 주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 11일 전임 과회장단이 「운영상 정책적인 제고」를 요구한 것도 이와 관련한 것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역필재학생

교련교육 면제돼

학군단에서는 80학년도 신학기부터 병역을 필한 재학생들에 대한 재학기간 중의 동원훈련 (교육훈련) 이 보류된다고 밝표했다.



자율화와 민주화를 앞이하는 자세는 지난과 방임을 배격하는 자성의 힘에화일 것이다. 지금은 지난하는 「난 사람」보다 신뢰하는 「든 사람」이 절실한 때가 아닐는지.

<교수회의 결의문>

학생활동에산 미책정

1980학년도 본대학 학생활동에 관한 예산이 3월15일 현재 아직인안되지않고있다.

예년의 경우에는 「학도호국단」이 신학기예산을 계획한 「운영백서」를 작성, 이를 「학도호국단상임지도위원」가 심의, 결정하는과정을거쳐왔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아직 총학생대표 기구가 구성되지 않고 있고며, 동특별도 국회지조한 실정에 있어서 신학기 학생활동일 행사에 따소 차질이 예상된다.

이문춘秋

알 림

4·19기념 학생대토론회

오는 4월19일로 4·19학생혁명 20주년을 맞게됩니다. 자주민족재야 각연합 항거하여 이땅에 경의로운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려 했던 그들의 정신은 과거 20년뒤 (지금) 오늘까지 연면히 살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학림 역사의 접곡을 체험한 이 민족이 위대한 민주시민으로 도약하려는이 시점에 있어서 4·19정신의 빛나는 새로운 사회와 대학의 연대기에 뜻있는 기록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본보에서는 4·19의 이념과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좌담회를 마련하였으니 많은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일고제수 : 30명 또는 70명
▲참 석 자 : 4월14일 (월) 오전 10시 학보 (학생회관 309호) 기자 전체세한사항은 본보에 문의바랍니다.

외대학보

대학인과 경영인

▲대학이 국가사회에서 국가의 개념을 초월할수 있는 구성체라고 가정하여, 우리는 그것을 유보시아 라 단정할수 없다. 또 말리 대학이 사회의 2차집단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익만을 위해 이합집산(離合集散) 하는 집단이라 부를수 없는 것이다.

결학자 「K · 아스퍼스」는 의학으로 국가사회의 존재, 내적으로는학생과교수의연구활동을 돕어 대학의 기본요건이라 했다.

대학이 이러한 기본요건으로 외적, 내적인 진리와 이상만을 추구할수 있는 장(場)이기 위해서 그것은 사회와 유리된 별개의 집단이어서는 안되며, 단지 지식만을 이식(移植) 하고 분양받는 단체로써만 것이어서도 안될것이다.

왜냐하면 대학은 대학에서 창출 (創出) 되는 지식과 인재으로 그 국가사회에 봉사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나아가 세계적 보편성속에서 참조에 그 원초적(原初的) 존립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이 사회와 유리된 별개의 집단이 아니었기에 이제껏 원초적의미로

◇최학장 입학식치사 (요지)◇

자립성과 넓은 시야 기르길

오늘 이 이문동산에는 새봄과 함께 1,850명의 많은 준재들을 한 가족으로 맞이하는 기쁨과 희망으로가득차있읍니다.

한국외국어대학은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나는 먼저 대학입학이 우단히 어려운 이 사회에서 그간 은 문을 깊은 진심으로 슬기 공부와 시험의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등정하던 상아탑의 세계안에서 높은 이상을 마음껏 펼쳐보게된 신입생 여러분의 행복된 마음을 헤아려 보며, 아낌없는 축하와 격려를 보내고자 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제뉴와 규획에 에워싸인 채 앞으로만 깊숙히 광을 키워오던 여러분께서는 대학생활을 상상할때, 한없는 자유와 낭만의 장소를 상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학에만 입학하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기대감으로 마음이 부풀어 있을지도 모르겠읍니다.

분명 대학에는 그 어느곳보다 자유가 있고, 낭만이 가득하고 그 위에 아름다운 꿈을 이 있는 곳입니다. 특히 오늘 때에 우리사회에 밀어닥친 자유화의 물결은 대학가에도 그 리 과장을 벗지어 학원내 자유화와 학생활동의 활성화가 눈이 고개를 들고 있는 시기이다. 할수없이 폐쇄된 공부에서 이제는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고싶어 하는 자세로, 밝기한 면 입장에서 점차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수 있는 자립의 태도로, 그리고 이기적이어 좁은 시야에서부터 넓고 먼 시야를 길러가야 합니다. 4년이라는 세월은 한 인간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주어진 4년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물론 선출(選出)되는 분에게는 그 4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상당한 지식과 성숙한 인격을 갖추고 당당한 사회의 인물로써 출발하게될 것이며, 인이하게 강물에 흐르듯 바람에 날리듯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분에게는 후회와 회의만이 가득한 채 졸업을 맞게 될 것입니다. 때오날드·마빈치의 일화에서처럼 4년의 세월은 한사람의 일굴을 에수의 일굴에서 유다의 일굴로 변화시킬 수 있읍니다. 나는 여러분이 졸업하는 날 이 사회, 이 나라가 요구하는 참다운 인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또 그럴 것을 확신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중에는 전부터 우리대학을 잘알고 원하는 끼에 부사히 합격한 학생들이 대부분일 것이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나 할 수 없다는 기분으로 들어온 학생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외국어대학에 입학하심 신입생 여러분께서는 우리대학의 특성과 교육방향을 차츰 깊 이해하여갈에 따라 결과가 국도로 부족한 우리나라를 해외로 웅비하게하며, 각나라와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이 나라의 발전과 인류문화에 공헌하자는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여러분의 많은 선배들은 지금 국내에서 국외에서 세계를 잇는 가교(架橋)의 역할을 함으로써 국위선양에 그리고 국제협력에 큰 몫을 하고 있읍니다.

오늘 외대에 입학하는 여러분 또한 이러한 뜻에 함께 참여하여 앞으로 외대가족으로써 의 사명과 긍지를 지켜나가며, 나아가 더큰 도약을 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대두되고 있는 학생자율화문제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교수님들을 비롯한 학원에 있는 우리들은 학원에 자유가 깊이 정착된다는 것은 오랜 거울처에 오는 봄처럼 반가운 일로 여기고 있읍니다. 다만 내가 학생여러분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바는 그렇다고 해서 대학의 존립의미 (raison d'être) 까지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고 어려분의 인격을 닦는 곳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자유는 있는 것이며, 자유를 위한 투쟁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한 자유와 자율화는 결코서 보장되어 주진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학문을 하고 인격을 수양하고자 하는 노력을 저해하는 일은 결코로 없어야 하겠읍니다. 비록 어려분의 말한마디, 행동 하나라도 이러한 책임감아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어려분의 대학생활에 많은 보람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80년 3월 5일

학 장 최 완 복

학원 민주화를 위한 제언

김 태 석

탐이 일고 있는 갈격적인 순간이다. 금년 봄은 오지 않으려나 하면 기후(紀侯)는 기후로서 사라지게 되려나 보다.

그러나 자유와 방종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듯이 우리는 현사태를 분명히 인식하고 학원 본연의 모습을 찾는데 온갖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젊음의 열정과 그치에 숨은 날카로운 지성을 동시에 이용없이 발휘하지 않은 행위는 그 결과가 항시 반측스럽지 못하였다. 마치 6·25당시 낙두산카 지 밀고 올라가 봉일을 목전 (目前) 에 두었던 우리 국군이 후방의 방비를 튼튼히 하지 못하였기에 중공군의 개입으로 무려하게 밀려 났듯이…. 이럴 때에 그 근본적 문제의식을 파헤치고 우리의 자세를 공고히 함은 무엇보다 급선무이라고 생각된다.

시대가 급변하고 상황의 전개가 조변석개(朝變夕改)인 현실에서 오늘의 젊이 내일의 진구로서 악수를 하게 됨은 흔히 볼수 있는 사실이다. 그 혼동의 와중(渦中) 에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자, 아심있는 자, 능력있는 자 모두가 자기 변호와 자기 주장에 급급하다. 한번쯤은 멋진 변설(辨說) 로써 주위 사람을 설복시켜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진다.

학생사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각자의 이해관계 (이는 순수한 학교운동(學校人) 뿐만 아니라 (學園人) 외발로 할 수도 있다) 에 따라 새로운 시대정신에 발맞추어 강의실에서 배운 지식을 현실에 실천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변화기 (과도기) 의 그것은 무엇한 구지지 않은 것이다.

분명히 학원의 민주화라는 명제는 한푼 개인의 입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래 위대한 인격자 학식을 중심으로 고대 그리스의 아카데미아 (Academia) 에서 출발한 학원은 그 이념을 학문의 자유와 함께 대학의 자치에 두어 대학에서의 학문과 사상의 연구 및 발표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바로 이럴 최에서 학원의 민주화는 곧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으로 집약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대학의 이념, 대학의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도 주장하여 왔으나 실제 깊무유(深有) 한 혜슬 한번도 보였다해도 파인이 아니다. 일제 (日帝) 의 억압 속에서 현실과 유리된 상아탑(象牙塔) 으로서의 대학의 개념은 나약할 수 밖에 없었다. 해방 후에도 그 잔재는 계속 유지되어 오면서 학원 외부의 문제에 눈을 돌린는 학생의 행동에 현실참여라 하며 그저 공부나 열심히 하라는 강요를 받아왔다. 강의 내용과 민주화를 주장할 줄만 알고 그 본질을 파악 하지 못한 대다수의 학생들에게는 강권서 불길로 보였다.

「말씨를 꽤 놓오면 하던 것도 그만 듣다」는 속담이 있거니와 이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킨다. 앞서 제기 되었던 학생 활동의 구심점 문제와 더불어, 참여—각 개인의 총의사를 집약할 수 있도록 토론과 대화를 활성화 (活性化) 시키는 의미의 참여—의 문제는 현재 거론되는 학원 민주화 문제 해결의 최대 쟁점이 되는 것이다.

학원의 주인은 학생이다.

학원의 자유는 상부에서 하장서으로 내려오는 자유가 아닌 학생 자체로부터의 자유로서 진정한 아카데미즘 (Academism) 의 확립을 의미한다. 우선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강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교수와 학생간의 자유로운 대화가 있어야 하며 창조로운 발전을 위한 발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때에 만일 학생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문제가 부정이며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모르게 된다면 그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 모두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가령 학도호국단과 학생자치기구인 총학생회의 차이점을 명백히 모른다면 학원 민주화는 공염불 (空念佛) 이 아니겠는가.

시대는 억압과 피동의 굴레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현실을 직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도산 (島山) 안창호선생의 주인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가르침도 있거니와 참여정신의 고취로서 이제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때가 왔다. 자유는 얻고자 애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저절로 얻어지는것이아니다.

지식의 전달기관이 대학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안다. 지식을 바탕으로 진리를 발견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여야 하는 사명이 학생에게는 있다. 현대는 대학이 끄고한 상아탑 (象牙塔) 의 개념속에서 사회와 우리집 재로 남아 있기를 요구하지 않으며, 대학과 사회는 상호 보족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는 대학의 존재이유를 제공하며 대학은 사회에 봉사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때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태도는 가장 경계하여야 할 독소(毒素) 인 것이다.

언론 및 출판 결사집회의 자유는 헌법상으로도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이다. 생각을 발표함으로써 의사를 전달하고 상·반의 토론을 갖는것은 지극히 단순한 민주주의의 원리이다. 이 인론의 통로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민주화의 발전은 그만큼더디다. 그동안 학내 제반 활동이 순연하게 흘리지 못하였음을 이제와서 탓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학원의 자율성이 보장될 때에서 학생 개개인의 의식혁명(意識革命) 이 이루어져 능동, 적인 참가가 거룩하도록 이룩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머리 속에 든 생각을 표현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실천에 옮기는 일이야말로 학원 민주화에 이르는 첩경이다. 민주주의는 어느 개인의 점유물이 아니다. 그리스의 전 (全) 시민이 아고라 광장에 모여 중지 (衆智) 를 모았듯이 의견을 표시해야 할 것이요 집약시켜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학내 언론의 문제에 있어서 학생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했음은 시대의 상황이라고 덮어두더라도 금후 새 시대가 요구하는 언론의 장 앞은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인론의 역할은 아카데미즘 (Academism)의 선장장과 위협에 눌려 표현의 자유를 잃는 일이 없어야 한다. 스승과 제자사이에, 학생과 학생 사이에 막혔던 혹이 무너져 흔들 즐거가 흘러내리고 학생과 학생 사이에 서로 보다 나은 이해, 이해를 위한 서정요로 관심하여야 한다.

최근 범 국민적 합의를 지닌 국민의사의 최고 집약체로서의 헌법을 만들려는 헌법개정작업이 한창이다. 해방이후 35년이 흘렀고 이제는 국민도 어느정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을 쌓았다. 하지만 아무리 목이 말라도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을 수는 없는 일이다. 차근차근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자는 주장이 어느새 일반여론인 것 같다. 학원의 민주화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피곤는 정년이기에 과격 행동을 저하기 쉬운 면도 있다. 문제의 해결은 학생 자자의 거룩한 참여 정신의 발휘에 의한 활발한 토론과 대화및 어른의 협심, 타시 이를 집약하여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학생의 자율적 실천기관의 성립—이것이 바로 「학원 민주화」의 길이요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획득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자.

거교적 참여정신의 발휘
자율적 실천기구의 성립이 관건
대학언론은 학내여론을 집약시켜야

<영어과·4>

학생 개개인의 의식혁명 이루어져야
충분한 대화와 토론으로 구심점(球心點)을 모색

어제까지 금기 (禁忌) 로 되어 왔던 학생 제반 활동이 오늘은 양성화 되었다. 학원 민주화를 위한 공청회를 알리는 플래카이드 (placard) 가 공공연하게 교문 위에 나부끼고 각종 공고 및 신입생을 유혹하는 시어를 활동이의 초대장이 그 어느때보다 나부하고 있다.

새봄의 향훈과 함께 침묵속에 얼어 음츠려 듣기만 하던 대학가에는 다시 「민주화」 「자율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분명 대학에는 그 어느곳보다 자유가 있고, 낭만이 가득하고 그 위에 아름다운 꿈을 이 있는 곳입니다. 특히 요즈때에 우리사회에 밀어닥친 자유화의 물결은 대학가에도 그 리 과장을 벗지어 학원내 자율화와 학생활동의 활성화가 눈이 고개를 들고 있는 시기이다. 할수없이 폐쇄된 공부에서 이제는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고싶어 하는 자세로, 밝기한 면 입장에서 점차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수 있는 자립의 태도로, 그리고 이기적이어 좁은 시야에서부터 넓고 먼 시야를 길러가야 합니다. 4년이라는 세월은 한 인간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주어진 4년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물론 선출(選出)되는 분에게는 그 4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상당한 지식과 성숙한 인격을 갖추고 당당한 사회의 인물로써 출발하게될 것이며, 인이하게 강물에 흐르듯 바람에 날리듯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분에게는 후회와 회의만이 가득한 채 졸업을 맞게 될 것입니다. 때오날드·마빈치의 일화에서처럼 4년의 세월은 한사람의 일굴을 에수의 일굴에서 유다의 일굴로 변화시킬 수 있읍니다. 나는 여러분이 졸업하는 날 이 사회, 이 나라가 요구하는 참다운 인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또 그럴 것을 확신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중에는 전부터 우리대학을 잘알고 원하는 끼에 부사히 합격한 학생들이 대부분일 것이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나 할 수 없다는 기분으로 들어온 학생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외국어대학에 입학하심 신입생 여러분께서는 우리대학의 특성과 교육방향을 차츰 깊 이해하여갈에 따라 결과가 국도로 부족한 우리나라를 해외로 웅비하게하며, 각나라와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이 나라의 발전과 인류문화에 공헌하자는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여러분의 많은 선배들은 지금 국내에서 국외에서 세계를 잇는 가교 (架橋) 의 역할을 함으로써 국위선양에 그리고 국제협력에 큰 몫을 하고 있읍니다.

오늘 외대에 입학하는 여러분 또한 이러한 뜻에 함께 참여하여 앞으로 외대가족으로써 의 사명과 긍지를 지켜나가며, 나아가 더큰 도약을 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대두되고 있는 학생자율화문제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교수님들을 비롯한 학원에 있는 우리들은 학원에 자유가 깊이 정착된다는 것은 오랜 거울처에 오는 봄처럼 반가운 일로 여기고 있읍니다. 다만 내가 학생여러분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바는 그렇다고 해서 대학의 존립의미 (raison d'être) 까지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고 어려분의 인격을 닦는 곳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자유는 있는 것이며, 자유를 위한 투쟁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한 자유와 자율화는 결코서 보장되어 주진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학문을 하고 인격을 수양하고자 하는 노력을 저해하는 일은 결코로 없어야 하겠읍니다. 비록 어려분의 말한마디, 행동 하나라도 이러한 책임감아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어려분의 대학생활에 많은 보람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80년 3월 5일

학 장 최 완 복

사설

대학의 봄을 맞으며

미비로바동산에 봄의 혯싶이 비친다.

갔다이 왔은 혯싶을 받으며 어둠고 긴 겨울동안 우리는 창조와 평화, 그리고 진리탐구의 밥을 쌓아 왔다. 활폭발한 사회의식을 체험해 왔다.

이제 우리는 진리탐구와 창조적 정의의 구현을 위한 타이나비한 힘의 표출을 스스로 경험했으며 스스로 자부와 긍지를 가지게 곧 되었다.

특폭된 경험은 우리의 능력을 재지하였고, 가능성과 성취자평을 가능할 수 있는 여유를 얻었으며 이십년전과는 다른 희망과 폭폭을 부영해 놓수 있게도 되었다. 거추내 슬었던 창조의 감재대가 불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진정에서 문을 활짝 열어 젖힘 들리를 부린는 하고 있다. 절절한 거울앞과 밤 늦게 잠들기전 혜슬 서려래로 말미암아 밥버릇을 부내드리지 않는지 이구석 저구석 살펴보아야 할 봄의 아침이다. 문을 열어 젖히고 먼지에 씌앙을 부딥 새로운 불이 이문포정에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 × ×

이문덤퍼스의 봄은 포문임구에서부터 오고 있다.

겨의문과 겨의문의 벼돌이 봄의 열쇠를 받아 기지개 켜 보인다. 봄물이 녹는 자정이 깊어 가면서는 과정이, 그리고 그위에 새로운 대지를 가꾸는 작업이, 분잡이가 포문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체험을, 그 과정을 우리는 사랑하고 실천하리라. 그문밖과 안에서 이 겨의문의 과정을 하나 하나 실을 뜯듯이 풀어가면서, 이번의 그 기틀 보기고 진리와 창조의 여각 실을 하나 하나 풀어가리라. 긴장과 대결이 평화의 과정일 하나 하나 수놓으면서, 긴 논밭속에 그 속 깊이에 희망과 미래를 담고 우리는 대화하리라. 민주화의 꽃을 과정의 연속이며 이 프로세스에 우리는 주의 깊게 시사 (時節) 를 뿌리라. 논의 과정이 그 타임·테그 (time tag) 가 합의점에 이르는 길없이보이는 민주화의 앙시이요, 어유요, 지혜라 하지 않았던가. 팔고 긴 겨의문의 평간마다에 숨어있는 슬한에기를, 그 과정을 우리는 사랑할 것이다. 진정한 민주화의 꽃을 시들지 않게하기 위해, 그 과정을 사랑하고, 개화를 빛고 도닥거리고 물길을 열으로 써서 현란한 시사와 향기의 훈발을 가꾸리라. 공용 연계 화사한 혯싶에 때씨 분수처럼 시원하게 이 이문포정에서 분수처럼 시원하게 이문포정에 가득 부어 내리리. 이윽은, 대학의 봄은, 우리 모두에 다시 없이 소중한공과 소망의 시작이다.

× × ×

겨의문의 벼돌이 혯싶을 받고 열기를 켜어 내기 시작하고 있다. 학생과 포수와 재단과의 벼돌과 대화가 혯싶을 받고 있다. 민주화의 물결이 피할 수 없는 과정이 되어 음츠려서 대학의 봄이 부숴 오는 일이 없이 닥치고 있다. 그러나 봄의 민주화는 문제의 시발도 아니며 더더구나 종착점도 아니다.

이심세기말에 세계의 모든 대학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숫적 또는 양적으로 확대의 폭풍에 밀려 민 대학은 세계도처에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의 여러 해결을 독탁게 부르짖고 있다.

기숙사, 도서관, 체육관, 그리고 사설의 도장인 숙과 냇물의 확장·유지가 대학의 재정을 압박하며 학생을 대해갈 것이고, 학생의 사회적역할과 책무를 들려서고 위기의 시대를 맞게될 것이다. 시대정신의 결핍은, 시대적의지의 봉쇄는 재정의 위기를 폭발점으로 몰고갈 것이다. 억압과, 탄압의 시대가, 폭력중 20세기말의 대학의 위기이다. 영그는 계절이 박고 고, 껍질가 떨어도록 힘든 여정이 지나는동안 씨앗이 가슴 속에 계절을 "또" 맞을 것이다. 대학의 자유와 진리탐구앞의 위기의 대학을 지킬 것이며 내일의 희망을 밤새 지켜줄 것이다. 봄의 혯싶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

꽃샘추위

▲봄이 왔다는 소식은 흔히 희망에 대한 설레가는 심이 부풀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기 마련. 그러나 봄이 왔다는 것은 겨울이 물러나, 말이 물리면 우리 마음도 풀려 흐사 지난 겨울에 대한 반발마냥, 힘차게 날개를 펴 떠어보고싶은 욕망이 피살 아닙다. 어렌지 날갯짓만 하면 모든게 잘 풀려나갈 것 같—그래도 어딥가 미심쩍어 우리는 대륜에 「입춘대길 (入春大吉)」이라 써놓이고 제발 그 「대길 (大吉)」이 실수없이 내림 을 맞아줬기를 바음쳐며 기다리기도 한다. 그래서 밥은 봄햇살에 눈이 밀어버린 우리는 지난 겨울동안 날개가 녹슬어 버리지나 않았을까하는 걱정년 전심이 없지 않다.

▲수수·경각을 주박 지나쳐 버리고 이제나 저제나 하며 봄을 기다리면 마음들은 이말조 머릴동안이나 낯기은이 열상 10도를 웃돌자 이젠 영락없는 봄입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그래서 이젠 지경기조차한 겨울의 민지를 복복 밀고, 서들러서 봄숫요로 갈아 입었다. 그리고 이제 최소한 어림발동안은 손발시킬 지경은 안하겠구나 싶어 안도의 숨을 내쉰게 며칠전이면, 우린 난 폐없는 한파 (寒波) 에 다시 음츠려들고 말았다. 이른바 냉기가 폐속까지 스며 드는게 「꽃샘추위」가 찾아왔는가는 거다.

▲▲▲

▲▲▲

이라고 했다. 그러나 박상 봄을 맞는 우리 마음은 한폐를 설계하고 겨울 없이 한번은 없다. 부차정 봄바람을 타고싶은 설레임이 녹슨 날개를 채 삶 펴보지도 않고 봉우리끼지 날아오르려는 무모함을 저지르려 하기때문이다. 그러나 곧 날개를 펴보려는 것이 전금을 들어올리는 것 같고, 연신 삐고며 멘다는 것을 알게되면 우린 대부분 망황스럽게 주저앉고 만다.

▲「꽃샘추위」가 입춘 (入春) 무 잠시 찾아온다는 것은 제법 의미가 있을것같다. 처음에야 우산없이 소나기를 맞아야 하는 속내의 심사처럼 주위를 중요. (?) 해보지만 다시 생각하면 이것이 일종의 유예기간인듯 싶은 것이다. 봄속에 찾아든 겨울에 우린 놀라기도 하지만, 그로해서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다잡아 놓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야 박연한 기대감에서 플려나와 한없는 비상 (飛翔) 을 위해 녹슨 날개를 펴고 조금씩 파닥여 볼수 있는것이다.

▲우리는 「꽃샘추위」의 원리를 또 하나의 봄—학원의 봄에도 적용시키는 것을 기꺼이 있다. 자유나 자율폭발이 아니라 파산자 이기주의와 불신도 폭깊이 불기를 입는 이 봄에, 한해의 봄을 벼년 (百年) 의 봄으로 문감시키기 위한 우리의 날갯짓은 봄의 「의미」를 확인하는 소중한 작업이 될 수 있을 게다.

<혜>

新裝移轉
英語·独語·日語
開講⇨ 4月1日
留学英語
高級英作
英文解釋①②③
TOEFL TIME
AFKN (미군방송)
三位一体, DIGEST
English 900 會話
生活英語會話 必須英語
Word power 基礎会話,
TOEFL 就職英語,
美人会話 SCREEN英語会話
Vocabulary 10,000(20,000)
TOEFL 受験英語
大学編入英語
留学国史 時事論文
日語班(初·中·高級) 會話班
独逸語文法完成, 独文解釋
院長:文昌淳
종로2가종각뒤EMI자리
74-2442, 72-9226,
時事英語学院
시사영어학원

종로2가75의6 (종로배극당옆)
☎73-6858
높아지는 근시를 렌즈로 예방하자
한국콘택트렌즈
서울부터 편하고 (자유로운
☆수영, 야구, 축구, 농구, 테니스
특수 스포츠렌즈

미국식 연애가 결들인 드릴과 써스펜스의 정치소설!!
대통령에게 알릴까요?
— 3월 10일 미국 대통령 암살 —
가차없이 다가오는 운명의 시각! 절고 매혹적인 예일대학교 법학부 출신 FBI수사관이 암살자를 쫓으며 겪는—긴박, 초조, 불안, 그리고 사랑…….
첫 페이지를 들치는 순간부터 독자는 잠 못 이룰 것이다.
값 2,300원/제프리 아처 著/朴益泰 譯
大學은 무엇하는 곳인가!!
大學의 理念
民主發展의 時代가 요청하는 大學의 使命은 무엇인가?
學園의 民主化를 부르짖는 大學과 大學生은 國家發展이란 大命題를 두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책은 그에 대한 충분한 해답을 제시해 줄 것이다.
크라운版/323面/값 4,800원
서울大敎授·文學博士 韓基彦 著
世光公社 서울·종로구 세종로동 176 ☎ 8800 ☎ 8888

대학가의 화제작!
결혼한 독신녀, 보봐르의 장편 에세이
3版!
값 1500원
시몬느 보봐르 著
朴貞子 譯
모든 사람은 혼자다
사르트르와의 계약결혼, 〈제2의 性〉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시몬느 보봐르의 實存主義的 삶과 그 思想의 파노라마!
杏林出版社 (32)3550·3034 (32)3703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5 출판단지 208호

'80년 신춘 독서계의 희오리바람!!
鄭乙炳의 代表長篇小說
6인의 도로 걷는 광대
重版!! 열흘만에 重版 또 重版!!
광대들로 구성된 한 집안의 쇼킹한 이야기
世光公社 ☎ 8800·8888

英美詩의 金字塔
英美詩叢書 全12卷
英美詩叢書 解說 I
「베오울프」~「18世紀英詩」
김석산外 共編 450pp. ₩1,800
英美詩叢書 解說 II
「浪漫主義英詩」~「20世紀英詩」
李在浩外 共編 518pp ₩2,000
베오울프 外 김석산 350pp ₩1000
캔터베리이야기 朴東文 金鎭萬 330pp ₩1000
十六世紀英詩 朴琪烈 330pp ₩1000
十七世紀英詩 李鳳俊 李在浩 365pp ₩1000
十八世紀英詩 李在浩 李大雨 410pp ₩1000
浪漫主義英詩 李在浩 350pp ₩1000
빅토리아朝英詩 李明愛 320pp ₩1000
二十世紀英詩 李在浩 365pp ₩1000
十九世紀英詩 李永傑 338pp ₩1000
二十世紀英詩 李永傑 365pp ₩1000
신뢰할 수 있는 筆陣 친절한 時期別 解說과 脚註 저렴한 가격 古代英詩 베오울프에서 20세기 英美詩에 이르는 150여 代表詩人의 450여편의 詩가 時代順으로 對譯수록된 한국 英文學史上 最初最大의 良書
探求堂 72-2004 72-2005 종로구 경운동 101-1

독일詩叢書 全8卷
中世獨逸詩
서울大 許昌雲 譯
260pp/₩1,000
프랑스詩叢書 全5卷
보들레르·파르나스派詩
金鵬九 譯 274pp/₩1000
象徵主義詩
延大宋 勉 譯 226pp/₩1,000
二十世紀英詩人選 全10卷중
로버트 프로스트
外大 李永傑 譯 ₩800
T.S. 엘리어트
東大 李昌培 譯 ₩800
現代大家叢書 全10卷중
T.S.엘리어트 158pp ₩800
N.프라이著/慶大 虞 譯
노엄촘스키 138pp ₩700
존 라이온스著/南龍祐 譯
探求堂 72-2004 72-2005 종로구 경운동 101-1

편입생 문제 지상 공청회

○……금년도에 두·아간 편입생을 받아들인 것……○
○……에 대해 일찍부터 재학생간에는 거센 부……○
○……정적 여론이 일었다. 현재 학내 문제의대……○
○……감 (大鐘) 등 손꼽히는 이슈 (issue)의 하……○
○……나로 줄어진 이 문제에 대해 교수·학생……○
○……들의 의견을 모아보았다. <편집자주>……○

편입, 본연의 기능 회복해야

김 찬 기

올해들어 우리 학교에 편입학 제도가 부활되어 주야간에 약 200여명의 편입생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편입학 제도의 본래 의도는 학생 자신에게 진정으로 적합한 전공 분야를 선택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 대학입시 제도의 문제점때문에 전공분야에 문제점을 느끼는 학생이 많음을 볼때 이 제도가 올게 사용된다면 매우 바람직한 제도가 될것이다.

그러나 현금의 편입학제도는 이러한 본래의 의도와는 거리가 먼, 대학이라는 이력을 쌓기위한 도구로 전락해가는 느낌이다.

이런 현상은 학문을 금전으로 살 수 있다는 현대 배금주의의 또 하나의 폐쇄가 아닐까?

이번 우리 학교와 같은 대량의 편입생모집은 단순히 그 본연의 기능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힘가서연지 않은 점이 보이는 것같다. 학교의 발전이 제한, 교수, 학생간의 신뢰에서 싹튼다고 볼때 학생에게 납득할 수 있는 사후조치라도 있어야 되겠다.

편입학 제도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여 학생 자신에게 적합한 전공분야 선택을 위한 계기가 되어 더 나은 학문발전에 기여하는 제도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엄어과·3>

편입시험 공정했는지

한 수 등

적지않은 편입생을 모집한 학교의 이번 처사는몇가지 의아심을 주고있다.

수선 79학년도 2학기가 종강될 때까지 우리 학교에서 편입생을 모집한다고 하는 소식은 전혀 들지못했다.

신학기 개강에 즈음해서야 편입생선발이 이미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많종의 배신감마저 들었다.

명색이 대학의 주됨 구성원이라는 학생이면서 대학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전연 알지도 못하고 대학생활을 했다는데서 노기는 소원감이 있다.

몇해명 정도의 편입생이 전체 정원에 비해 그리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좀더 좁은데 퍼스 내에 학생을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확실히 약속할 수 있는것은 다음부터 편입생 선발 어부도 교수회의 심의를 거친다음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학생들이 이 문제를 듣고 강경한 자세로만 일관하지 말고 여러가지 각도에서 성찰한 다음 지성인으로서의 신중한 자세를 가져주기 바란다.

<교수3명 의견종합>

교수회의에서 결정, 시행해야

금년 본 대학에서 200명가까이 되는 편입생을 뽑게 된 이유는 학교 재정상 문제점이 가장 큰 초점이라 할수 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의 반발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잊지만 사학의 실정상 재정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본 대학의 이번 편입생 선발은 제법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따라서 편입생의 질적 수준저하의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싶다.

물론 학교당국이 학생의 의견을 배제하고 편입시험을 치렀다는 데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부하고자 하여 올려오는 학생을 막을 권리는 없다고 본다.

이미 과포화상태에 이른 캠퍼스는 그 자체 기능적 문과에서 우려되는지만, 학교당국이 방학중에 임방적으로 행한 이번 조치는 일부 사립대학의 편입생모집 추세에 편승한 악작한 명경으로까지 오인될수도 있는 것이다.

더우기 본모생들까지 이런 본 캠퍼스에서 갖이 수학하게 됨에 따라 인구밀장의 극대화를 이루고 있는 서울에 와서 공이 중단했던 편입학을 다시 허가하는 처사는 납득이 안간다. 이러한 양쪽행장은 그에 따른 내외인 질적 종지 수업료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보수와 수업료 문제는 2차적 문제가 아닌가 한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1980년대 초반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혼란을 면키어려울 것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지성인들이 모였다는 대학마저 무질서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장래 어떻게 될것인가를 학생들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가 혼란의 와중에 있을 때 대학이 스스로 무질서 속의 질서를 찾아내는 선구자적 역할을 해내야 하지 않을가.

본 문제를 제기코하여 앞으로 본 대학이 어떤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학교당국, 교수, 학생이 허심탄회하게 협의한다면 안풀릴 문제가 없다고 본다. 경허한 자세로 교수는 학생을, 학생은 교수와 학교당국을 상호 신뢰할 때보다 훌륭한 의욕어대학으로 성장시 킬것는가. 학생들의 자고 상고가 있기를 부탁하는 바이다.

<교양학부·교학학>

대학발전을 위하여 우리의 문제점

<차 례>

1. 학 칙
2. 학생대표기구
3. 학내언론, 출판
4. 서어를
5. 커리큘럼
6. 에필로그

75년 7월, 학도호국단 실치령에 따라 총 학생회가 해체된 이래 5년여만이다. 학원가에는 다시금 수직적 임명제에 의한 것이 아닌 학생들 각개의 자발적 한의에따라 구성될 학생대표기구를 반생시키기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개강과 더불어, 이른바「학원민주화」를 위한 공식, 비공식의 학생단체들이 각대학마다 점차 그 활동을 확대했고 조속한 시일내에 학생들의 총의를 집약한학생대표기구를 반생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본대학도 이에 발 맞추어 그간 「전임과회장단」「학원민주화추진회」「서어클연합회」등의 학생단체가 「자율화」와 「민주화」의 기치아래 총학생회의 전면부활을 주장하여 활동해왔다.

지난 2월 29일로 유신체제의 산물이었던 「학도호국단」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사실상 지난 14일현재 이르기까지 학내에는 「정풍성」과 「다수성」 양자를 모두 갖춘 공식적인학생대표기구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총학생회를 반생시켜야 한다는 목표에 한결같이 같은 입장을 나타내었으나 그 구성에 따른 방법론상 의견이 분분해 합일점을 찾기가 어려웠던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전임과회장단」과「신임과회장단」이 정식으로 인수인계를 마친 지난 14일, 학내 각 단체는 학생의견창구의 일원화를 위한 회합을 가졌고 이에따라 「신임과회장단」이 앞으로 단일화된 입시학생대표기구로서 학생들의 총의를 집약, 총학생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부활시키기 위한 작업을 맡도록 결정을 보았다.

「파도기는 빠를수록 좋다」는 말이 빛발침해 주듯이「신임과회장단」은 조속한 시일, 즉 늦어도 4월초까지는 총학생회를 부활시키겠다는 결의를 한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현재와장이 「신임과회장단」이 「정풍성」과 다수성을 지닌 입시학생대표기구로서 공식활동을 할수 있기 까지는 의견 창구의 일원화에 력지않은 진통이 있었다. 「의견의 다양화」라는 장점이 어떤 의미에서는 「총학생회 부활」의 시기를 지연시키는 역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학생들간에 거론되었던 것이고 보면, 지난 18일 「학원민주화추진회」와 「서어클연합회」가 모두 「파회장단」을 적극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보아서도 이제 그러한 문제는 해결되었다고생각해서 무방할것이다.

논의학은 단과대로서 현재 4개학부로 나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구성단위가 각 과로 되어있는제이므로 각과 학생들이 직선으로 선출한 「신임과회장단」은 누가 보아도 전기 (前期) 한바의 양자를 모두 지닌 단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단일화된의견창구를 통해서 어떻게학생들의 총의를 집학할 것이며, 또 총학생회 부활을 위한 선거는 어떤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전 의대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관해 학생들 일각에서「제3의체제」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75년 이전 「총학생회」의 「부활」인가 아니면 새로운 체제의「단생」인가의 여부도 새로운 학생대표기구가 창출되기까지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먼저 학생들의 총의를 집약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에서 좀더 범위를 넓혀 각과 학생대표들로 구성된 「과대표회의」를 두는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75년 이전의 총학생회를 구성하고 있던 기구들 중 「대의원회」와 같은기구의 역할을 「과대표회의」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증보 신입과회장단의 실무집행기관인 「상임위원회」를 편제할수 있는 기능도 아울러 가지게 된다. 「과대표회의」를 두는 것은 좀더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믿는다. 그밖에도 문호를 개방하여 그간 조직력으로 활동해왔던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선거방법상 직·간선의 문제가 있다. 75년 이전의 총학생회는 1965년의 총학생회장 선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선에 의해 구성되었다. 간선을 할경우에는「과대표회의」나「과회장단」으로 구성되는「대의원회」에서 총학생회장을 뽑는방법과 학생대표기구가 지양해야하는바 일차적 목표라고 생각된다.

「학생대표기구」는 어떤 학생이나 서어클의 상위존재가 아니므로 앞으로 총학생회를 구성할 입시학생대표기구는 이러한점에 십분유의, 사심의 개입을 물론 없어야하며 이는 특정한 집단의 의견만을 고집해서도 안될 것이다. 현시점에서는 집부하나마 (중용) 과 (포용) 의 도리가 가장 바람직한 입시학생대표기구의 자세라고 믿는바이다. <최문석기자>

◇65년 총학생회 대의원회의 장면.

「과회장단」…… 의견창구 일원화

과대표회의, 대의원회와 같은 구실해야

직선(直選), 학생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길

발언

현재 학내문제에 대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학생건의, 교수회의에서 타당성 인정

대학자율화… 제도적 개선이 급선무

서 병 완

정치발전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기 전의 대학평정과 학생지도는 슬픔히 말해 강독관청의 일방적 지시와통제에 의하여 대부분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각 학과의 특수성을 무시한채 졸업학점의 획일적 인하라든지, 심험대학의 경우 부전공 이수의 의무화라든지, 학생 자치활동의 법주제시와 통제 등은 그 대표적 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그동안 억눌렸던 스프링이 튀겨고로 튀어나가듯이 교수나 학생들의 대학자율화및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겠다. 특히 학생들은 대학자율화및 대학평정 개선에 관한 나름대로의 안(案)을 작성, 이를 학교당국에 강력히 요구하고있는 것이 오늘의 각 대학 실정이 아닌가한다.

본 대학도 예외는 아니어서 학생들은 발전의 조직(과회장단, 학생시기자단, 자생적 조직체인 자율화추진위원회등)을 통하여 본대학 자율화방안 및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각 조직체 나름대로 작성, 이를 학교당국에서 반영토록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건의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미 교수들로 구성된 자율화추진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규정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나머지 건의내용 (예를 들면 학도호국단의 명칭, 조직, 선거, 기타 써클활동 문제등) 도 머도록이면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학생들과 협의하여 규정화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본고 작금의 어려운 문제는 자율화 문제가 논의되면중 일부 학생들이 급학기 등록금 인하를 주장한데서 비롯되었고 본다. 학생들의 주장은 최근 몇년간 본교의 등록금이 타대학에 비하여 비교적 높았으니 금학기 등록금을인

하해야 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에 학교당국은 문제의 심각성을 슬픔히 인정, 전체교수회의를 연일 개최, 어느때보다도 진지한 검토를 가졌던 것이다. 그 결과 학생들의 주장을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자는 결론이 나온것이다. 즉 금학기 등록금 인하는 반대하며 대신 장려 학교발전의 반석이 될 제도적 개선책의 확립과 교수 학생들이 다같이 현하면 교수연구비 기금과 학생장학기금을 확보토록 하자는것이었다. 이 밖에도 학생들의 복지시설개선에 최우선권을 둔다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전체교수회의의 의사를 위임받은 교무위원회는 구체적 해결방안을작성, 이를 학교당국에 제시, 이의 실시 확약을 받은것이 학생들에게 게시(揭示)된 내용 그대로인것이다.

전체교수회의에서 금학기 등록금 인하를 반대한 이유는 대학 3가지 이유에서였다. 첫째, 본대학 금학기 등록금을 타 대학의 것과 비교한 결과 평균수준이지 높은 편이 아닌 점들째, 금학기 등록금을 인하할경 학교 예산상의 혼란과 기타 타 대학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치 않을 수 없다는 점 셋째, 단지 등록금 인하보다는 본 대학 장기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 확립과 교수연구기금및 장학기금의 확보 등이 보다 바람직한 해결방안이라고 판단된 점 등이다.

학생들에게 게시된 해결방안에 대하여 전체교수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또한 학생들 대부분도 이 게시된 내용에 대하여 만족스럽게 여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학자율화와 제도적 개선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윤부터 어떤 형태의 제도적 개선을 원하였지 무턱 부전공이나 제2외국어 강의의 교수가 갑자기 바뀌거나 합반하는 사례가 빈번해 모처럼만의 학구열을 식히고 있다고.

군계일학 (群鷄一鶴) 보다야 속에 티가 낮겠지만 A보다 A+가 더 좋다는건 재론의 여지가 없다 (報酬) 문제가 아닐 것이며, 반면 학생들은 어떻게하면 보다 좋은 학습 (Learning)을 받느냐에 있다 (C) 이것이 교수 학생 간의 공경한 시험관리에 의한 것이었다면 사전에 경정을 통해 주수한 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작에 이를 공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미 들어온 편입생이 위화감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여인 모두가 서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본어과·3>

캠퍼스의 과포화 상태

점 인 숙

학교당국이 금년도에들어 재 허가한 편입학은 학내의 어려가지 상황을 성찰해 볼때 학내 인구 수용에 있어서 시의에 적절치 않은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이미 과포화상태에 이른 캠퍼스는 그 자체 기능적 문과에서 우려되는지만, 학교당국이 방학중에 임방적으로 행한 이번 조치는 일부 사립대학의 편입생모집 추세에 편승한 악작한 명경으로까지 오인될수도 있는 것이다.

더우기 본모생들까지 이런 본 캠퍼스에서 갖이 수학하게 됨에 따라 인구밀장의 극대화를 이루고 있는 서울에 와서 공이 중단했던 편입학을 다시 허가하는 처사는 납득이 안간다. 이러한 양쪽행장은 그에 따른 내외인 질적 종지 수업료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보수와 수업료 문제는 2차적 문제가 아닌가 한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1980년대 초반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혼란을 면키어려울 것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지성인들이 모였다는 대학마저 무질서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장래 어떻게 될것인가를 학생들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가 혼란의 와중에 있을 때 대학이 스스로 무질서 속의 질서를 찾아내는 선구자적 역할을 해내야 하지 않을가.

본 문제를 제기코하여 앞으로 본 대학이 어떤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학교당국, 교수, 학생이 허심탄회하게 협의한다면 안풀릴 문제가 없다고 본다. 경허한 자세로 교수는 학생을, 학생은 교수와 학교당국을 상호 신뢰할 때보다 훌륭한 의욕어대학으로 성장시 킬것는가. 학생들의 자고 상고가 있기를 부탁하는 바이다.

<교양학부·교학학>

A보다는 A+를

○…백년 학기초면 나들던「학보」는 3월 개강, 나는 4월 개강」이란 유행어가 이번 학기에는 먹을 풋주는 듯.

3월 한달은 「관광」 과 「유강」으로 대강 때우면것이 피차 두인피이은 사실이었던지, 금학기면 대부분의 교수님들 것 시간부터 열린 강의로 학생들을 어리둥실케 했는데 다만 일부 부전공이나 제2외국어 강의의 교수가 갑자기 바뀌거나 합반하는 사례가 빈번해 모처럼만의 학구열을 식히고 있다고.

군계일학 (群鷄一鶴) 보다야 속에 티가 낮겠지만 A보다 A+가 더 좋다는건 재론의 여지가 없을듯.

○…학원 자율화의 열기가 모아지고 있는 학생회관 3층에서 크로니클 지 (子) 「흡산즈」의 지성체 면모를 새삼 재확인해.

지난 14일 오후 회의실에모여 논평을 벌이고있던 「신임 각과 회장들, 구내다방에서 날라온 커피 한잔으로 가벼운 입씨 옥을 즉이는 한때의 망중한 (忙中閑) 을 즐기기도.

가히 음료상박 (龍肥相駁) 이라 설전 (舌戰) 의와중에도 우리의 상징인 비둘기의 심성 (心性) 은 앞았는는 에기.

○…학내 최대의 이슈 (issue) 가 피고있는 등록금문제가 급기야는 학교바깥까지 소문이퍼져.

모방송사 일간신문에까지 접안일이 보도된 이마당에 14일 학내 곳곳에 게시된 교수님들의결의문을 등록금 인하에 반대한다는 단호한 의지가 보이고…이에 반하여 등록금을 인하해야한다는 학생들은포수단 결의를 하여 항다하고 삡난하고….

교수나 학생이 이렇게 서로 의견이 팔팔하는데 아리송해.

○…도서관 좌석 1대7, 식당좌석 1대17, 구내다방 1대227…

현재 이문캠퍼스의 인구밀도를 나타내는 이 수치는 별로 책임 있는 모 (某) 여 「흡산즈」들이 구내식당에서 산출한 공상적 자료에 근거한 것.

길고 긴 점심식사의 대열에 싹마 동참하지 못하고 「핫도그」로 드거리진 흡산즈의 머리에 무슨 생각인들 안나겠소?

○…요즈음 도서관이 빼아니성 꽝을 이루어 발발일 뿐이 없다는 질규 (?) 가 들려와 입단은 반가운 마음이었는데.

자리를 잡지 못하고 도서관을 나오는 한 흡산즈의 푸념은 자못 음연쩍이었으니 『이런길 투고 「비정상적인 정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크로니클>

비정상적, 정상(?)

李 在 玉 著

＊＊＊国内 最高権威の 英語指針書＊＊＊

TOEFL 就職 英語研究
海外留学・就職・大学院試験 準備書

基本英作文研究
文法・構文 中心の 高校上級班、大学生の 英作文 基本指針書.

高級英作文研究
中・高級の 主客観式 英作文 研究の 最高 権威書. —大学生・成人用—

NEWSPAPER ENG.
新聞等 一般時事に 出ている 特殊 用語を 辞典式で 蒐録、仝者 例文を 提示 説明. —教養人を 対象—

WORD POWER
Levine과 Lewis의 名著를 綜合, 語原中心의 英語語彙를 정확히 註解 하였음. Review부분은 이 책만이 지니고 있는 특징임. —附録 至智—

綜合考試英語研究
司法・行政・外務・技術等 各種 国家考試 및 大学編入試験에 命中率 높은 斯界의 権威書.

綜合英文解釋研究
現・近代 英語文豪, 哲学・思想・科学・史学・随筆家를 総網羅, 数百題에 달하는 珠玉같은 名文을 蒐録, 完璧하게 註解하였음. —大学生・英語教師・成人用—

図書出版 昭明社 TEL. 32-9692 269-9215

Now is the time to invest!
貿易研修生 募集
商工部 傘下團體로서 貿易研修事門機關인 社團法人 韓國貿易研修院 (TRAMA) 에서는 正貿易振興研修會員을 다음과같이 募集한다.
1. 研修對象
②貿易, 生産, 保險, 運輸, 金融業體및 이와 關聯機關에 從事하는者
③貿易業에 從事코자하는者나 貿易士試驗에 합격코자 하는자
2. 登錄接受
②接受期間 : 3월11일~3월24일
③接受場所 : 事務局(261)7371, 7372
3. 教育事項
②期間 : 10주간 (3개월과정)
③時間 : 18時30分~21時25分 (月~金)
④講場 : 3월25일 火曜日 19 : 00分
※특전 : 학생증소지자에 한하여 교재 무료배부
토·일요회원특별반신설
1. 기간 : 12주간
2. 시간 : 토 : 오후4 : 00~8 : 00
일 : 오전9 : 00~13 : 00
3. 개강 : 3월22일(토)오후4 : 00
※평일은 시간이 없어서 토, 일요일 시간을 활용하고자 하는자를 위한 반
社團法人 韓國貿易研修院
단성사뒤 ☎7371~2

검안사경은 따라시력 광신안경
▲▲백고도 강근음시 광신교예 등간과 ☎555-0909

대학은 우리에게 실망보다 더 큰 것을 안겨 주었다. 실력없는 교수가 그렇고 얻는 것에 비하여 턱없이 비싼 등록금이 그렇고 졸업장을 위하여 공부하는 내 친구들이 그렇고…

일류 대학이 곧 일류 인생이라는 것 경을 스스럼 없이 내리며 「적성은 관계 없다. 입학만 하여 다오」라며, 고등 학교 3년 동안실성한사람처럼 「일류 일류」하는부모님의 원대로 모든사람으로부터사랑받는 학세사리인 일류 벳지를 달았다.

일마나 신나는 일이란 말인가? 이렇게 신나는 데한잔만 먹을수 없지. 친구야! 우리 함께 건배하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부라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부라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부라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부라자!

1학점의 천재들

신원 문화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 3동 137의 201 전화 95-4343

하버드 대학의 학창시절
스코트 터로우/장백일 옮김
A5신판 · 318페이지 · 값2,000원
한 마디로 〈놀라운 책〉이다. 1류 터일즈 조웰 셀리그먼
모든 대학생들을 위한 名著이자 快書이다.
종합출판 汎文社
마포구 신수동 445-9 (34)2121~(35)5151

새시대의 장을 열며

혼란아닌 화합으로 우리의것 되찾아야

10.26사태이후 세상은 많이도 달라졌다. 우리는 그 큰 변화를 발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굳이 그 변화를 발전이라 표현하는데는 그 변화가 좋은 변화이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학이 사회와 불가분의 유기체 관련을 지닌, 즉 사회와 우리집 접단이라는 그래서 그 사회에 대해 학문적·지적으로 봉사해야되는 곳이기에 학내 제반 문제들도 발전적으로 풀릴수 있어야 한다. 만일, 대학이 이러한 세대를 무시하고 발전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커다란 시행착오로 간주되게 될 것이다.

다시말해 주시대의 잔재들을 안정이라는 미명아래 음지 정상하지 못하고 학내자율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들을 누가 과거보다 미래에 삶 젊은지성인들이라고 하겠는가? 물론 이러한 발전의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근자에 학내 에서도 『총학생회』부활을두고 갈가랄부 심지어는 폭·백논리까지 반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대립으로 어쩌겠다는 이야기인가? 마찰과 대립의 산물로서 『총학생회』가 설령 탄생한다고 한들 그 『총학생회』가 과연 학생들을위해서 어떻게 활동할수 있겠는가?

마찰과 대립은 지양되어야한다. 우리에게는 화합이 필요하다.

학내의 자율화와 그에따른 총학생회의 부활이라는 대명제에 우리는 이미 의견의 일치를 보고있다. 이런 경지에는 누구도 그방향을 돌려 놓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다 대립이 있는 이야기는 사건이 개입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주변한 명제하에서도 결코 이루어 질수 없는 것

정의로운사회, 평등한 사회 구현에역주

인간을 두개의 얼굴을 지닌 Janus (야뉴신)적존재라고 한다면, 그 하나는 logos<이성>의 얼굴이요 다른 하나는 Pathos<정열>의 얼굴일 것이다.

우리는 이 두가지의 얼굴을 일마만큼 조화시키는가에 따라 올바르고 참된 인간성여부를 평가받게 된다. 따라서 logros의 얼굴만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할수 없을 것이며, 역시 Pathos의 얼굴만으로도 존재할수 없다. 때문에 배움에는 그 어느 한계점을 둘수 없다고 말하며, 즉 더나은 인간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아무리 높은 학식과 사회적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본질적 순수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전 인생을 배움속에 바쳤다, 할지라도 그 배움의 기존적 요소조차 활용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한마리의 학이가 바닷가에서 사람을 발견하면, 우선적으로는 그를 죽이고 그 다음엔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린데서 결국에는 동방 삼고박고 말것이라는. Shakespere의 「학이의 눈물」이란 이야기가 있다.

언제부터인가 대부분의사람들은 점차한 개인주의 에들이 들어버렸고, 온갖 사회악이 만연하는 부인지 못할 현실속에 부여기게 되었다. 더우기나 세기의 부패위에 올라서서 폐가를 부르는 숙자의 앙심은 어떤 것일까? 어느 사회도 최선이거나 만능일 수는 없지만 자유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은 더 한층의 타락을 가져오며, 결국 타락의 악순환 속에 그 사회는 침체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의 사명감이 발현되어야한다. 왜냐하면 진실과 진리는 진정한 비판을 낳고 지성인의 최고의 덕성은인식과 실천을 겸부시키는데 있기 때문이다.

3년전에 다시 들어선 대피스는 불기에 넘쳐 있었다. 이로서 학원의 민주화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었다. 전만 다행스런 일이 아닐수 없다. 대학 당국은 자율적인 학생활동을 보장하여, 진실한 비판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겠고, 대학인은 진리 앞에서 굴어지지 않는 결기와 패기를 가지고 정의로운 사회, 평등한 사회의 구현에 앞장서야 겠다. 또한 공교육비가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교육의 제도적 모순에, 부익부 빈익빈의 상태가 점점 심화되어, 상당한 부분까지 병들어 있는 우리의 사회에서 배우고 있는 입장이 못에온 사람들을 위해 조금은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

모토록, 시작된 학원 민주화의 바람이 타수의 대학인이 바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상아탑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와주길 갈망한다.

김명한<태국어과·2>

사명감과 겸허함으로 본분 이행할 수 있어야

흑독히 추웠던 겨울은지나고 이제 80년대의 봄빛이 들판 산을 찾아 들고 있다. 이 뉴스속과함께 긴급조치 위반으로 옥이여 (獄囚) 되었던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이분동상으로 쫓아왔다. 이 소식은 교수 및 학우들의 가슴에 기쁨을안겨 주었다. 학교당국도 이들의 복교에 신학기 등록금의 면제와 기타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얘기는 듣는 이들을 흐뭇하게 하게 하였다. 물론 이 호의가 그들이 저은 고생에비할수는 없을 것이다.

이들 젊은이들이 타의에 의하여 학업이중단되고 영어의 몸이 되었을 때 가트치는 이들의 가슴 또한 착잡하였다. 이제 이 착잡한 감정은 사라지고 홀가분 함을 느낀다.

이들의 영어생활이 가르쳐주는 한가지 사실은 그 값짚잖을 가리기전의 우리의 사회현실에 소신대로행동하였음을 증명한다. 이렇듯은 곧 역사적 참여를의미하며 또 책적적 참여는 용자 (勇者) 만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용감성은 년륜을 헛되 못하고 할기를 부릅다면 앞으로의 학생활동방향이, 우리의 현실이 앞을에 질 수 밖에 없을것이다.

그것은 곧 주시대의 유빈, 진보요로 발학함으로써 새로운 역사창조의 기회를 부여받은 선인으로써의 기회를 박탈당함을 의미하는 것이 될것이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민주여망을 파소평가하게 함으로써 물에 박힌, 제도화된 학원 자율화 (?) 를 긍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도 될것이다.

일련 문교부에서 발표한 개정안을 우리들의 중지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를 호도하려는 자들에게, 우리의 민주여망을 과시하여 마관한 패기를 박아 두는 것도 이 심정에서 해야할일이다.

이제 우리는 새 시대의 문턱에 서있다. 70년대에서 80년대로의 시점적 구분이 아닌 위기로부터의 기회, 절망으로부터의 해방, 제체로부터의 주체, 혼란으로부터의 정립의 문턱에 서있는 것이다. 지난 날 우리들은 우리의 뜻이 아닌 남의 뜻에 의해 우리의 것을 강지못하고 남의 것을 쫓아 지나고 있었다.

이제 깊었던 우리의 것을 화합으로 되찾고, 벽에 걸린 거울에 우리들의 모습을 한 번 더 비춰보면서 박사로운 봉기운을 맞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됨때 우리 캠퍼스에는 한껏 방그레운 봉내음과함께 지성의 피가 용솟음칠 수 있을 것이다.

허 의 도<법학과·2>

신입생 수필

대학생활에의 지표를 세우며

▲이회숙

꼬회의 풍소리가 들린지 다. 그리고는 서서히 흙색이 회색으로 얼어져갔다니. 아! 회색빛 아침이군요. 언제부터인가 잠겼던 때양빛의 아침보다는 이러한 회색빛의 아침을 좋아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 잿빛의 조용한 아침은 포근한 사색을 가져다줍니다. 불연의 밤사이에서 유혹한 정복과함께 겨 져이야 했던 손상 상념들을 서서히 정화시켜주는 듯 합니다. 작은 창문

화신과 함께 새로워지는 3월,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화 그리고 학문의 자유를 외치며 힘차게 흐름해 나가고 있는 캠퍼스내에나 역시도 그에 못지 않는강동과 기쁨으로 초롱한 눈동자를 반짝이며 머리속엔 높은 이상과 꿈을 그리고 가슴에는 의대를 안은 채로 진리의 문에들어섰었다.

자유스러운 분위기와 함께, 신입생이면 다 느껴볼 수있는 어설한듯한 분위기는 아마도 여전의 중·고등학교때의 시절과는 전혀 다른 자율적인 대학생활과 낯선 캠퍼스생활, 즉 낯선 교수님과 선배님들 그리고 함께 입학한 수 많은 동료들로 부터 연유된것이리라 생각한다. 4일동안의 입성안에서 들창을 열고보니 전 저곳을 일정에 따라나 보게 돌아다니는 후에야 어느정도 낯을 익히게 되었다.

그러나 학상 이 예비교육기간이 끝난뒤 동분선배 가 없는 나를서 도서관과 사운드 라이브러리를 찌어다니며 처음으로 문도 두드려보고, 또한 첫 강의도 들어보니 교수님에 대한궁금한 점과 학교내에서 잘 일러줄 선배가 절실함 경도로 필요했었다. 그러나이 번집들은 내가 찾아서 선택한 서어클에서만가주시면 수많은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충분히 해결될수 있었고 오히려 서어클을통해대학의 분위를 벌어드리는 관행이 계속될 필요가 없다는 소리가 남학생은 물론 여학생간에도 높다.

「연담」의 발전적 해체와 「외대」지에의 통합을 권유하는 의견의 근거를 폭넓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것 같다.

복잡「청년문화의 재조명」은 진부한 소재이지만 서두에 밝힌 기획의도 대로 자칫 나름대로 참신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진과 각 주제를 불분명하한 분류기준이 없는 백화점식의 나열에 그친 감이 없지않다.

「포토에세이」가 지나치게 관념적이라고 가끔 지적되고 있는데도 별반 개선의 듯이 없는 것 같다. 원칙적으로 한국 가포스기로선 필한 것은 이번 「연담」의 하나의 특징이 될수 있을 것이다.

<곽>

엔담 외대

참신한 기획 아쉬워

과감한 편집미 보여줘

독자 욕구에 부응

정신적인 자기발전 도모

▲최창성

인생은 서로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겠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모든 「만남」은 과거의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영혼인 의미에서 최초로 부모를 만나고 세상에 태어나서 형제와 가족을 만나고 그리고 이웃과 벗과 스승을 만나며, 결혼하여 아내를 만나고 다시 자기 자손을 만난다.

만물이 소생하는 싱그러운 초봄, 나는 매년 이맘쯤 때가 되면 즐겁고 반가운 마음으로 인생행로의 수많은 「만남」가운데 자아의 한 상을 향하여 주어진 과정의 첫발을 내딛는 우리학생들의 신입생들과 해후상봉 (邂逅相逢)을 한다.

이 「만남」은 대립과 시기와 미움과 투쟁의 관계가 아니오 정복과 승리와 패배의 관계가 아니라 순수하고 고결하고 반갑고 즐거운 「만남」이요 육체적 정신적 자기발전을 도모하는 관계이다.

따라서 거기에는 학우들의 「만남」도 있고 새로운 선후배간의 「만남」도있다. 한 핏줄을 이어받은 친형제는 아니지만 학문으로 맺어지는 혈연 지연의 관계가 성립된다. 자연계의 나무에 싹이 트듯이 사랑과 우정의 싹이 튼다.

봄날의 싹스런 햇살 아래서 싱그러운 풀내음을 맡으며 그들과 함께 아외수업할 날이 기다려진다. 입시의 시달림으로 피로해진 그들의 심신을 포근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련다.

<태국어과·과장>

해 후

사랑방록

다음제목 : 희 복
매 수 : 200자 3 매
마 감 : 3월21일

새로운 의미 부여해야

▲유광성

의 대학생활에 있어서 지표가 될것이다.

동일연령에서 거의 10분의 1 만이 대학에 진학할수 있다는 우리나라의 사정을 감안해 본다면 선택된 일개인으로서 4년동안의 대학생활을 젊음의 정열과남만의 발산장소로만 구가하지말고 졸업후 나머지 전체발지못한 10분의 9 라는다수를 위해 도움을 줄수있도록 힘써 노력해 볼 작정이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항상 「unique and best university」 인으로서의 포양인이 되어야함은 필수일것이다. 이제 의미를 알게된 나의 마음 속에는벌써부터 꿋이 반발하였다.

<법정학부·1>

송하석

게까지 견해온다면 서로간의 불신의 벽은 봄과 함께 녹아 버릴 것이고, 진실한 대화가 다리가 되어 만남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될수 있을 것이다.

마지않아 아랍한 꼬정에 다가올 춘심과 함께 우리 모두의 마음도 활짝 피어 지금까지의 시니컬한 웃음을 벌군 새 모습으로 겨의없는 대화가 이루어질수 있지…. <불어과·2>

이문만평

한국
NUKE
NUKE
NUKE